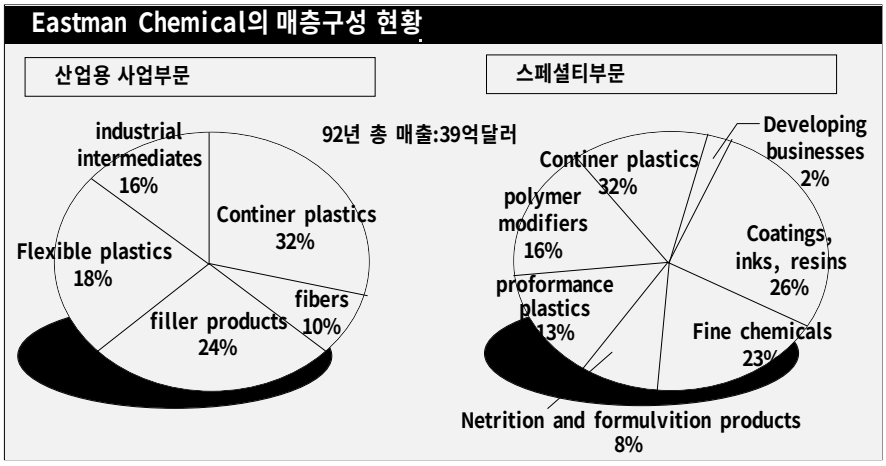
Eastman, Kodak과 Chemical 분리

모기업 주주에게 배당… Kodak 부채 100억달러중 20억달러 탕감

Eastman Kodak이 화학 계열회사인 Eastman Chemical의 주식 100%를 94년 1월1일 모기업 주주들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실질분리가 이루어지면 Kodak은 Eastman Chemical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되고 Kodak의 부채 100억달러 중 20억달러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매 대신 주식분배 방식을 선택한 것은 투자은행 Goldman Sachs와 컨설팅기업 Mckinsy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Eastman은 대차대조표상 화학부문과 같은 수준의 자본구성이 되도록 화학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1년전 Union Carbide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주식을 처리한 산업가스기업 Praxair는 투자율이 낮으며, 부채비율이 63%정도로 투자수준은 높은 편이다.



Eastman Chemical은 4년이상 모기업인 Kodak에 자금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Kodak으로부터 독립하면 더 많은 여유자금을 사업 확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astman Chemical의 92년 세 공제후이익은 91년보다 8% 감소한 4억9400만달러였다. 분할상환금은 화학부문의 감가상각과 비슷한 수준인 3억3700만달러를 유지했다.
Eastman Chemical의 합동 배당보유액은 약1억3000만달러였고 자본지출은 22% 감소한 4억6700만달러였다. 또 92년 환경 프로젝트에 11% 증가한 2억1900만달러를 지출했다.
92년말 총 자산은 5% 증가한 42억5500만달러였고 이중 60%는 산업용 화학부문에, 40%는 스페셜티부문에 속한다. 92년말 고용은 4% 증가한 1만8300명이였으며 현재는 1만8500명이다.
92년 Eastman Chemical의 매출은 5%증가한 39억2700만달러였으며, 이중 2억8900만달러를 Kodak에 판매했고 약 35~40%는 북미지역의 거래실적이다.

<화학저널 1993/7/26>